

시론



강용
학사농장 대표

10여년 전 이스라엘로 농업연수를 갔던 적이 있었다. 출발 전날 과로했던 탓인지 갑자기 목이 심하게 부어올라 집 가까운 한의원에서 침과 뜸 치료를 받았는데 다행히 한두 시간 만에 좋아져 목적지인 이스라엘로 설레임을 안고 떠났다.

그런데 장시간 비행이 힘들었는지 도착하자마자 다시 통증이 시작되었고 결국 견디다 못해 응급실로 실려갔지만 치료가 불필요하다는 의사의 냉정한 소견에 별다른 처방조차 받지 못한 채 다시 숙소로 돌아오고 말았다.

하지만 증상은 호전되지 않았고 극심한 고통을 견디다 못해 결국 거의 실신한 상태로 다시 응급실로 실려 갔고, 밤새 링거와 항생제 등의 치료 후에야 겨우 염증이 가라 앉았지만 아직 염증의 씨앗이 남아있는 듯한 상태로 일정 상 치료를 마치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퇴원을 했다.

현장칼럼



김종철
한국전기공사협회 광주시회장

지난해 8월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무안공항 활성화를 위해 광주 민간공항과 무안 국제공항을 2021년까지 통합하기로 전격 합의함에 따라 광주·전남 간 공공항 이전 논의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모아졌다.

이 시장은 앞서 지난 2월 ‘광주 공공항 이전 시민추진협의회’창립총회에 참석해 “국방부가 예비 이전 후보지를 발표해야 해당지역에 이전사업을 구체적인 내용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등 후속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후 이 시장, 김영록 도지사, 정경두 국방부장관이 비공개로 만남이 이루어졌다. 이날 이 시장은 광주 군

현장칼럼



류미수
광주시 고령사회정책과장

1년 중 가장 아름다운 신록의 계절 5월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부부의 날 등 가정에 관한 기념일이 많아 ‘가정의 달’이라고도 불린다. 그 중에도 5월8일 ‘어버이날’이 가슴 먹먹하게 다가오는 것은 필자가 우리시의 노인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도 하지만 돌아가신 부모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자식의 도리를 다하지 못한 죄송함 때문일 것이다.

일찍이 효는 ‘백행(百行)의 근본’이라며 최고의 실천덕목으로 여긴 동양의 전유물로 생각하기 쉽지만 정작 어버이날은 미국의 28대 대통령 우드로 윌슨이 1914년 5월 둘째주 일요일을 ‘어버이날’로 정하면서 시작되었다고 하니 어버이를 공경하고 섬기는 일은 동서고금 공통의 미덕이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어버이날은 1956년

사회적 치료

접하면서, 세상은 더 풍요롭고 여유로워 졌다는데 왜 우리 사회는 이렇게 더 아파지고 망들여가고 병들어 가는 것일까 생각해 본다.

페니실린이 인류의 생명을 구했듯 당장의 치료와 예방을 위해서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은 당연히 필요하다. 과거나 지금이나 남을 해(害) 하는 것은 거론의 여지가 없이 나쁜 짓이며 나는 강력한 처벌을 지향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요즘의 범죄나 사건들은 의식이나 이성이 무력화되고 반성과 죄의식도 부족해 보인다.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들이 이미 분석하고 대안을 세우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강력한 처벌과 함께 왜 이런 범죄가 늘어나는지 사회적인 환경과 구조적인 문제를 인식하고 찾아내서 함께 치료하는 사회적 연구와 사회적 치료가 병행되어야만 지금의 불행을 반복해서 겪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먼저 ‘가르칠 수도 없는 교육’을 들고 싶다.

세계 인구의 0.2%에 불과한 유대인들은 사람들 간에 지켜야하는 강한 윤법과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토론을

가르치는 ‘예시바’라는 학교를 통해서 국가도 국민도 없이 2천년을 떠돌다가 나라를 세웠고, 노벨상을 독점하다시피하고 -개인적으로는 인정하기 싫지만- 세상을 움직이고 있다. 지금 우리의 학교는 가르칠 수 있는지, 둘째로 복지와 사회 안전망이다.

집 한 칸 때문에 평생을 은행에 저당 잡히고, 기준선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도태되고, 추락하면 받쳐줄 것 하나 없어 각자도생(各自度生)으로까지 표현되는 지금의 사회의 모습은 과연 요즘의 사건사고들과 무관한 단지 그들만의 문제인지 심각하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요즘 정치 경제 사회 여러 부문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충돌 등을 본다. 가장 심각한 정치는 논외로 하더라도, 전권을 돌려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도 사회도 온통 아픔 투성으로 보인다. 염증의 치료를 위해서 항생제도 필요하고, 경쟁과 빈곤의 추락에서 얻은 마음의 병을 치료하기 위한 자연요법 같은 처방도 필요할 것이다.

우리나라 지도자들 중에 부디 당장의 아픔과 잘못된 부위를 잘 도려낼 줄 알고, 막힌 세상의 기운을 잘 흐르게 하는 그런 훌륭한 의사나 한의사나 대체의학자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광주공항 이전은 광주·전남 새로운 상생의 시작점

광항 이반 사업을 위한 예비 이전 후보지선정절차가 늦어지고 있는데 대해 광주시민들의 우려가 큰 만큼 예비 후보지 선정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국방부가 적극적으로 서둘러 줄 것을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지사 역시 큰 틀에서는 군공항 이전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광주시와 국방부가 이전 후보지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구체적 계획안 등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광주와 전남은 한 뿌리이고 정치·경제·문화·정서를 함께 하는 공동 운명체이다. 그래서 상생 협력으로 풀어야 할 현안들이 많다. 힘을 합치면 서로 이익이 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군공항 이전사업도 그 중 하나이다. 이전 빛가람 혁신도시라는 지역 상생 협력 모델을 만든 경험이 있기에 군공항 이전 문제도 양 지역간 상생의 자세로 원만하게 해결하길 바라는 염원이 크다.

그러나, 7개월이 지나도록 아직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이전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지역들의

반발 여론에 막혀 사업 추진이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하니 안타까운 일이다.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은 산업화와 인구 증가로 광주의 도시 외연이 확장되면서 외곽지역이었던 군공항 주변이 대규모 주거단지로 둘러싸이게 됐고, 그로 인해 시민과의 갈등 유발, 군의 작전 운영상 제약 등으로 군사시설로서의 적합성이 현저히 낮아짐에 따라 새로운 부지에 신공항을 건설해 이전하고 기존 부지는 공항부로부터 양여를 받아 개발하는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경제계 입장에서는 군공항 이전 사업이 순항해 광주·전남 양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미래 성장동력 창출의 토대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경제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새로운 이전 부지의 신공항 건설에 4조791억원이 투입되고 이전부지 주변 지역의 개발사업 등을 위해 4천508억원이 지원된다고 하니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은 물론 지역이 새롭게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중전부지도 새롭게 태어난다. 영산강과 황룡강에 걸친 천혜의 자연

환경과 KTX 역세권, 상무지구와 수완지구, 주요 산업단지들에 둘러싸인 잠재력 높은 부지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첨단 스마트 도시로 개발되어 광주와 전남의 산업인 시너지 제고와 미래 성장동력 및 일자리 창출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방부도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을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다. 군사시설 이전을 둘러싼 갈등은 지자체의 노력만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국방부의 중재 노력으로 지자체와 주민간의 갈등이 원만히 수습된 장원39사단의 환안 이전 성공 사례처럼 국방부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 군공항과 함께 사용중인 민간공항이 무안 국제공항과 통합되는 시기가 2021년이고, 무안공항과 지적에서는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이 추진된다. 우리 내부의 갈등으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며 천년을 동고동락해온 광주·전남 공동체가 같은 마음으로 오래도록 함께 번영할 수 있는 상생의 길을 찾기를 기대해본다.

어버이날 단상(斷想)

에 5월8일을 ‘어버이날’로 정하여 이어져오다가 1973년에 명칭이 ‘어버이날’로 바뀐 이후 오늘에 이르고 있다.

‘문지마라 갑자생’이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서 갑자생은 1924년에 태어난 사립이 낳 뜻이다. 이 분들은 지금 생존해 계시면 96세가 되는데 일제강점기 강제징집과 6·25전쟁 등 집국의 역사를 운몸으로 겪으며 가혹한 희생을 치른 세대라는 한을 갖고 있다. 굳이 갑자생이 아니더라도 우리 부모님 세대는 혹독한 가난 속에서도 자식 교육에 열성을 쏟아 여나지 못하고 있음은 너무도 안타까운 일이다.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43.7%, 70~74세 고령자의 고용률은 33.1%로 OECD 회원국 중 각각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 노인들은 생활비를 본인이 직접

터 인상했으며 2021년에는 소득하위 70%이내 어르신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지급할 예정이다. 저소득 어르신들에 대한 급식 지원단가도 2천500원에서 3천원으로 인상하는 등 돌봄 서비스 제공기준을 타 시도의 평균이 상으로 보장하는 광주형 노인복지 최소보장제도를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다. 특히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여 나이드는 것이 불편하지 않고 어르신들 면 전화로라도 자주 안부를 살피고 형제간에 우애있게 지내는 것 외에 무엇을 크게 바라시겠는가. 부모님은 기다려주시지 않으니 돌아가신 뒤에 후회되지 않도록 부디 작고 쉬운 일부터 미루지 말고 오늘부터 단상 실천할 일이다.

社說

5·18 진실규명 위해 미국 기밀자료 공개해야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39주년을 맞았지만 왜곡·편향해 그치지 않고 있다. 우리 사회 일각에서 부단히 재생산되는 이같은 일그러진 시각들은 이른바 ‘폭도들에 의한 광주주요사태’로 매도한 1980년 신군부의 ‘5·18담론’이 여전히 영향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 광주 시민들은 계엄군의 야만적인 폭력에 대해 스스로 ‘해방광주’를 지칭하며 자신의 공동체를 수호하고 희생했지만, 신군부는 자신들이 장악한 언론을 통해 광주를 고립시키고 광주정신을 매도했다.

따라서 5·18에 대한 왜곡·편향을 근원적으로 끊어내기 위해서는 신군부가 광주의 진실을 숨기고 왜곡했던 상황을 되짚어 규명해야만 해소할 수 있다.

5·18 진실규명의 주요 쟁점으로는 최초 발포 명령자를 색출하는 일과 당시 발포 명령자로 지목되는 전두환씨의 광주 행적과 지휘권의 이원화, 1980년 행방불명된 사람들에 대한 조사 등 보다 다각적이고 면밀한 조사를 과제로 삼고 있다.

이 시점에서 가장 객관적이고 정확한 입증 자료는 미국 측 기밀자료가 비밀의 열쇠라는 게 국민들의 생각이다. 이에 김동철 의원(바

른미래당·광산 갑)이 ‘5·18 진실규명을 위한 미국 측 기밀자료의 전면 공개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해 미국 측 반응이 주목된다.

김 의원은 “올해 4월12일 미국 정부는 1980년대 아르헨티나 군부독재 정권이 저지른 납치·고문·암살 등 이른바 ‘더러운 전쟁’에 관한 자료들을 기밀 해제해 아르헨티나 정부에 전달했으며, 칠레·엘살바도르·과테말라 역시 미국 측으로부터 관련 기밀 자료들을 받은 바 있다”면서 “우리에게도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미국 측 기밀자료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미국 측 기밀자료는 당시 학살을 지시하고 명령했던 지휘계통의 확인, 발표책임자의 규명, 행거사건 진실 등을 규명하기 위한 소중한 자료”라고 밝혔다.

진상규명을 위한 5·18 특별법이 제정된 만큼 실제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정부는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 자료의 포괄적이고 전면적인 공개를 미국 행정부에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이를 국내로 반입하기 위한 외교적인 조치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

광주 전통시장 활성화 브랜드 개발 중요하다

광주시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국비 106억원을 추가 확보해 기 확보된 국비 88억원을 포함해 총 194억원의 국비를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쓸 수 있게 됐다. 이는 지난해 광주시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위해 확보한 국비 115억원보다 79억원이 늘어난 것이어서 고무적이다.

이번에 확보한 국비는 ▲주차환경 개선사업 55억원 ▲상권활성화 사업 40억원 ▲특성화시장 9억5천만원 ▲청년몰 활성화 사업 1억5천만원 등에 사용된다.

전통시장은 영세한 상인들의 생계터전일 뿐 아니라 서민들이 저렴하게 생필품을 구입할 수 있는 가성비 높은 상거래 장소이다. 뿐만 아니라 광주 양동시장이 개장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간직하고 있듯이 우리민족 고유의 문화가 살아 숨쉬고 있는 저자거리이다. 실상 백화점이나 할인점같은 현대식 점포들이 많지 않은 90년대 초반 하더라도 전통시장은 유통의 중심이었다.

그러나 90년대 들어 백화점과 할인점의 등장으로 전통시장은 차츰 사양길로 접어들기 시작했다. 반면 다수의 영세 상인들로 구성된 전통시장은 대형쇼핑몰의 공격적인 시장점

식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인프라에다 빈약한 자본력과 지휘체계의 상실로 제대로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급속히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전통시장이 예전과 같은 활기를 되찾기 위해서는 브랜드개발과 같은 유통기능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1913송정역시장 활성화 프로젝트가 주목된다. 현대차그룹이 기획한 이 사업은 침체된 전통시장에 문화, 디자인, ICT(정보통신기술)를 접목해 현재와 과거가 공존하고 미래를 꿈꾸는 전통시장을 표방했다. 이에 아와 커피, 물품 보관함, KTX 열차시간 전광판, 공동화장실, 점포 역사관, 아와 안내관, 대형 시계 등 다양한 편의시설 및 볼거리가 설치됐다.

각 점포에 맞는 영업방식 및 점포 관리법, 제품 진열 및 포장 방식, 서비스 등에 대한 교육과 상품품 개발도 도왔다. 그 결과 일일 평균 시장 방문객은 기존 200여명에서 4천여명 수준이 유지되고 있으며, 상점당 매출도 3~4배 가량 증가하는 등 광주지역 대표 관광명소가 됐다.

이번 194억원의 국비가 전통시장 활성화에 단비가 되었으면 한다.

그래픽 뉴스

미혼남녀 44% “내 집 마련 필요하지만 불가능해 보인다”

미혼남녀 10명 중 4명 이상이 내 집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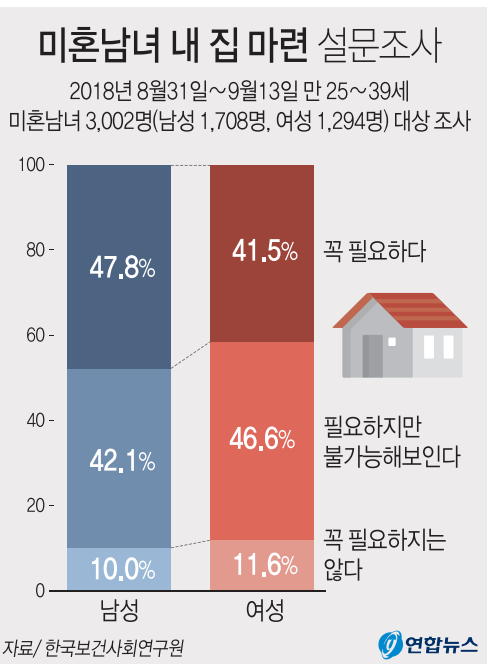
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청년층 주거특성과 결혼 간의 연관성 연구’ 보고서(변수정·조성호·이지혜 연구위원)에 따르면 2018년 8월31일~9월13일 만 25~39세 미혼남녀 3천2명(남성 1천708명·여성 1천294명)을 대상으로 자가 소유에 대한 생각을 알아본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조사에서 ‘반드시 집을 소유해야 한다’는 응답은 45.1%였다.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내 집 마련이 불가능해 보인다’는 대답도 44.0%로 비슷하게 나왔다.

“꼭 필요하지는 않다”는 답은 10.7%, 기타 0.2%였다.

성별로 보면, ‘필요하다’는 응답은 남성 47.8%, 여성 41.5%로 남성이 많았다. ‘내 집 마련이 필요하지만 불가능해 보인다’는 응답은 남성 42.1%, 여성 46.6%로 여성이 많았다. 거주지역별로 보면 ‘내 집 마련이 필요하지만 불가능해 보인다’는 응답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이 47.1%로, 광역시(41.8%)나 그 외 시도(39.1%)보다 훨씬 높았다. 수도권에 높은 집값 수준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부모의 재산상태에 따라서도 자기 소유에 대한 인식 차이가 드러났다. ‘내 집 마련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부모의 경제 수준이 상위 그룹에서는 53.7%로 높았지만, 중위 그룹은 45.2%, 하위 그룹은 37.7%였다.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南成淑		주필 朴俊洙
편집국장 吳星洙		(우)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국	편집부 650-2090	지 역 특 집 부 650-2060	광 고 문 의 650-2099	FAX 650-2016
	정지부 650-2030	체 육 부 650-2065	광 고 국 650-2072	광국국 650-2016
	경제부 650-2050	사 진 부 650-2080	경 영 지 원 국 650-2010	편집국 650-2017
	사회부 650-2040	서 설 실 650-2006	기 획 사 업 국 650-2079	업무국 650-2019
	문화부 650-2067	서울지사(02) 786-9488	업 무 국 650-202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가10(日刊)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